

#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양선원외 대행스님께 여쭙아 응답해 드립니다. 삶과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 www.hanmaum.org ● FAX: (034)470-3116

## 법공양 페이지

# 내 마음에 켜 놓은 불이 곧 연등불

만 불이 넘는 해아릴 수 없는 불들이 깨우쳐도 한 부처님입니다. 오늘을 우리들과 똑같은 생일로 정해놓은 축제날입니다. 부처님께서 태어나시고 깨달으심이 들이 아니지만 굳이 오늘로 정해놓으신 것은 모르는 여러분을 위해서 모두 방편으로써 날을 정해놓으신 겁니다. 부처님이 그렇게 생일잔치 해달라고, 축복을 해달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일과 더불어 똑같이 한 생일이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연등을 켤 때에 올리는 자유로써 켜게 했습니다. 정해놓지 않은 이름으로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가 하는 것을 지켜보기 위해서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연등이라는 것은 부처님 당시에도 연등불이 계시어서 '너는 이 다음에 석가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타의에서 말할 해주시는 게 아니라 자의에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연등불께서 말합니다. 바깥으로만 끄달리지 마세요. 연등불이 따로 있고 부처가 따로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다 부처님 상이지요. 여러분이 다 부처님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 안에 연등불이 계십니다. 우리의 모습은 연등이며 그 안의 불은 바로 연등불이라고 하죠. 연등불께서는 자기가 한 것대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를 리드해 나가고 이끌어 나가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연등을 켤 때에 내가 돈이나 얼마 내고서 불만 켜고 나가면 다 된 걸로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피나는 고통을 다지면서 마음의 불을 꺼 놓을 다지고 다지면서 치열한 문제가 많았던가? 일체 만물만생과 더불어 같이 구르면서 바른쪽으로 돌아서 왼쪽으로 돌아오고, 왼쪽으로 돌아서 바른쪽으로 돌아오고 하는 수레와 같은 인생살이를 말합니다. 거들거들 태어나고 거들거들 좌천하고 거들거들 오르고 내리면서 우리가 하면서 마음을 다지면서 마음의 불을 켜 놓는 것이요. 그럼으로써 그 등불은 방편으로써 모든 불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서 연등이라는 자체가 아주 귀중합니다. 내 한생각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불이 밝고 어두운 것이지 불을 무조건 등어다가 켜고만 해서 큰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불을 그렇게 진실하게, 아주 단정히 마음을 다스리고 한 번 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차츰 알아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생일이 따로 있고 태어난 이 따로 있고 그런 것도 널리 생각해 보면 하나도 따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난 날이 생일이라고 "나 생일선물 안 해줘?" 이라고 하는데 그 생일이 자기는 생일이라고 하지만 산하대지에 만물만생을 길러주던 그 어머니의 노고는 얼마나 많았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히려 생일선물 해달라기 이전에 가슴속 깊이 눈물을 머금고 고통을 이기 시던 그 어머니의 생각을 한번이나 해 보셨습니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찡한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남다른 막대한 돈과 다 그 어머니 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널리 생각을 한다면 어머니는 광대하고 무뎠습니다. 어머니는 자비하시다. 내게 죽음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대신 하려고 하신다. 그래서 어머니는 이물해서 방편으로 쓰기를 산하대지의 만물만생을 기르시는 어머니라고 이렇게 존칭해서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어머니는 대단하시고 영원하신 겁니다. 어머니이기 때문이지요. 또 아버지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일체 한 울에서 태양처럼 비내리듯 하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그 광대한 뜻이죠.

### 수레와 같은 인생살이

그러나 아버지가 없어도 아니되고 어머니가 없어도 아니되고 그 가운데 인간들이 없어도 아니되는 거죠. 그런 고로 우리가 이 연등 불축을 할 때, 나 하나를 빼놓지 말고 모두가 더불어 같이 마음을 내야 부처님의 마음과 직결된 마음이 통신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새해초에 있는 촛불재나 4월에 맞는 초파일일 있을 때 어떠한 생각으로 하십니까? 오며 가며 남들이 하니 그냥 나도 하겠다 하는 생각으로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한마음을 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생사에 관한 건은 물론 더불어 세생생애에 걸쳐 일에 대해 그 한생각이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올해는 여러분이 연등을 켜는데 적든지 많든지 자유로써 하시라고 했습니다. 다 생각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욕심이 있다면, 자기가 꼭 쓸 물건을 사야할



그림 · 최주현

## 마음 실체 없으니 자유롭게 쓸수 있어 공체로서 공용·공식하는게 살림살이

덴데도 돈 내기가 아까워서 쓸 물건을 제대로 사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등이 적고 크게 문제가 아니고, 켜고 안 켜고 문제가 아닙니다. 등이 크면 돈이 많고 등이 작으면 돈이 적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성실성의 정성을 다해서 하면 큰 물건을 살 수 있는 것도 됩니다. 그러나 돈을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돈을 이만큼 내서 꼭 그 물건을 사야만이 지금 가정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텐데, 돈내기가 아까워서 그 물건을 사지 못하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이것은 모든 게 자유로써 이루어져야 합니다.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해서 하는 것은 공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유로써 공덕을 이루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님네들은 돈이 들어왔던 안 들어왔던 상관이 없습니다. 왜? 스님네들이 받는 게 아니기 때문이지요. 모두가 자기를 속여 있는 천차만별의 생명들을 조복받기도 어려워 그냥 하루하루 시공이 없이 돌아가면서 공부를 하는데, 즉 공부 아닌 공부죠.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지 않은 것까지 어떻게 쫓아다니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해부터는 여러분의 자유로써 저 시장에 나가서 물건을 살 때 자기가 쓸 만한 물건을 자기가 살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건 정확합니다.

### 내마음 제불이 다 알아

그렇게 다스리면서 그렇게 대처하면서 이 부처님 법은 병만 낫게 하는 게 부처님 법이 아닙니다. 병을 낫게 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그 한생각으로서 병도 낫게 한다면 자기가 약사가 되는 것이죠. 한생각에 관하는 것이 그겁니다. 한생각 속에서 나오는 것이 천차만별로 나오는 그 관법입니다.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바로 자기가 관해서 자기가 약사가 돼서 병을 고치고 자기가 관세음보살이 돼서 가난하고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을 하죠. 자기가 그대로 진실하게 자기 뿌리에서 '너만이 저러지'를 줄 수 있어서 니두가 푸르르게 살게 할 수 있

다고 바로 굴러서 왔을 때 관세음보살이 되죠. 또 좋은 데로 못갔을 때에 진짜로 진실하게 관했을 때에 바로 지장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명이 짧았을 때는 진실하게 관하면 칠성 부처가 되고 물에서 간 사람이 있어서 진실하게 관하면 자기가 용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납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위대하다는 것을요.

그런데 여러분은 스스로 굶어서 부스럼을 만들고, 내가 아무리 여러분이 부처라고, 99%가 부처라고 해도 영 낫지 않는데도 듣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진실하게 마음의 불을 켜면 연등불이 계신 것이고, 내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래? 그저 내가 사는 대로 사는 거지. 이렇게 무시하면 연등불은 안 계신 겁니다. 본래 등을 모두 가지고 있는 건데도 자기가 불을 켜지 않으면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지만 하면 될 합니까? 불을 켜야 불이 들어오는 뜻과 더불어 홀로이 있다는 뜻입니다. 전부 각자 같이 돌아가면서 개개인 하나하나가 천차만별로 돌아가는 뜻입니다. 그러나 독존이라고 한 뜻이 뭐냐. 모두가 각자, 하나하나 그 개개인이 다 놓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운전하는 기사들이 없다면 우리가 참 곤란스러운 때가 있었지요. 기사는 기사대로 놓습니다. 노동하는 분들은 노동하는 대로 놓고, 또 농사꾼은 농사꾼대로 놓습니다. 거저는 거저대로 놓고요. 그러기 때문에 평등하고 아주 광대무변한 것이죠.

오늘 연등을 켜실 때에 내가 아주 큰 문제를 해결 해야 할텐데, 이 등 켜는 덴 그저 속 이렇게 얼마 벗었다 혹은 내가 등을 켜는데 이게 아니라구나 하는 분들을 대치를 하세요. 난 여러분이 울고 불고 하는 거 싫거든요. 사람이 꼭 말을 해서 만이 오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럼 부처가 아니게요? 우리가 부처될 수가 없게요? 바로 우리 마음들이 마음먹고 있는 것을 우주 삼라만상에 일체제불의 마음이 다 알고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거저이 하나도 없거든요.

누가 이래라 저래라 얼마 내라 하지 않았어도 여러분이 정성스럽게 마음내고

### 등고 도는 물질의 세계

부처님 법이 한 백지장 사이를 넘으면 된다는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만 실천하기가 그렇게 멀고 멀어서 총생이라고 하고 부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오신 날이 없기 때문에 가신 날도 없습니다. 또 부처님은 하신 바도 없고 안 하신 바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체가 부처님 도량 아님이 없으며 전체가 나 아님이 없고 내 모습 아님이 없습니다. 모습이야 천차만별로 돼 있을지언정 어찌 마음이야 들어겠습니까. 그래서 한 손을 위로 들고 한 발로 땅을 디뎠습니다. 그 뜻은 무엇인가?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될 겁니다.

우리는 지수화풍을 바탕으로 해서 생겨났지만 그 물질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화해가 바뀌어집니다. 바뀌어져서 생명체가 됐는데 생명체만 봤다면 지수화풍의 도리를 몰라요. 그래서 기어보기도 하고 누워보기도 하고 살아보니까 그 역경이 말도 못해. 그러다 보니까 경험을 쌓고 체험을 하고 발전을 이루고 이렇게 인간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인간으로서는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물이라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올라오고, 내려가고 올라오고 이렇게 광대하게 벌어진 것이 왜냐하면 어느 물질이든 지수화풍이 겹쳐져서 없게 없게 이 지수화풍으로 생겨서 지수화풍을 개별적으로 다시 또 먹고 삽니다. 한 대 통친 육성, 범성, 유성, 이 모두가 그 자체로서의 지수화풍을, 이게 좀 적으면 이걸로 보존하고 저게 적으면 저걸로 용합시키고 이렇게 해서 모자라는 것을 채워줍니다. 우리가 목마르면 물을 마시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침을 원하는 종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불을 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 밀교강좌 테이프 판매

해정 대정사님이 강의하신 '밀교강좌' 방송본을 TAPE 제작, 판매합니다.  
해정 대정사님의 주옥과 같은 법문 80일분량 (20개들이 1SET)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이번 테이프는 밀교의 교리와 수행을 보다 쉽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밀교강좌 TAPE를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 '금수지다라니'를 드립니다.

◆ 아래의 계좌로 입금후 전화를 주시면 맥으로 우송하여 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 065-01-0153-673  
주택은행 : 061725-89-144651  
예금주 : 최종웅  
금액 : 80,000원  
문의전화 : (02)913-0133-4

### 묘법연화경 수량품병풍

#### 팍업체 작품

항상 독경과 제복을 풍수제복을 장하고 나서 연화경 작품은 쓴 파업체가 있다. 그리고 그 작품을 울 분단에서 모셔놓고 기도도 드린 최상의 공덕의 작품을 믿음이 바른 사람은 믿을 것이다. 이 법화경 작품을 가장 다방, 생활장소에 모셔놓고 작업 전 독경과 제복을 울 풍장하고 엄무보하는 사람이야 부처님과 호반신으로부터 수호하는 가호력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연후에 모든 재앙을 소멸하고 사람이 영원하는 모든 소원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다. 바라건대 희망과 파업을 버리고, 청정하고 조성한 높은 법화경 파업체 수량품을 모시기 바란다.

※ 묘법연화경은 각자의 마음자체인 것이다. 믿음이 생기는 사람은 여기 석가모니본님의 유혹받은 본분제가 경승유도하는 "법화경 수량품" 파업체 작품을 모셔다가 수행하여, 수량품 거울에 반조되는 진면목을 보기 바란다.

나 무 묘법연화경 보급가

- 수량품 병풍 파업체 작품 1점 10만원
- 불자 제작작품 1점 3만원
- 불자 전필작품 1점 10만원
- 수량품 팻(60cm)파업체 묵서 천필1점 20만원
- 수량품 팻(60cm)파업체 순금 천필1점 50만원

※ 수량품 작품을 모시는 분에 한하여 제작작품 불자 1점을 보시한다.  
※ 각 사찰의 불사으로 보시할 대용천 원관과 주연과 주연분임

보급처 : **전통사**  
**대한불교대승연화회**  
연락처 : 0591) 746-7350 017) 552-7350

### 시와 칼럼

#### 마음의 창

보덕현호선사 저

새벽의 향내음 같고  
아침이슬 같으며  
질은 안개같은 마음

늘 푸른 자연과 같고  
청정수와 같으며  
청순한 소녀의 가슴같은 마음

어둠속의 달님과 같고  
새벽을 여는 새벽같은 마음  
밝은 아침 햇살 같은 마음

푸른 하늘과 같고  
허공과 같으며  
바다와 같은 마음

- 본문 중에서 -

▶ 명상시집 1. 정화의 빛 - 값 5,400원  
2. 고향의 숨결 - 값 5,300원  
3. 해탈 - 값 7,200원

총남연기군 금남면 석교리 510 (우)339-830  
Tel: 0415) 867-4000  
Fax: 0415) 867-4001

###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 운장법사의 생필(眞本)

'5운광채'의 빛을 발하는 신비한 '용린佛字'

「오복을 가져오는 새천년시대 용의 꿈을 꾸세요!」

소곡 소장하여 할 가장 고귀한 진품 명품  
◎ 선기·영기 발하는 용자 말마(말마대사)그림, 용자 그림(수액과 차단) 특별보시!

정품으로 배우는 서예 사군자 달마 佛字, 용자 그림 전수자 수시모집!

한국 수액파 방식 총연합회 인증 100% 효과  
▶ 인터넷 대안불교 미술작품 판매망 http://www.korea-art-gallery.org http://www.mahamall.co.kr

사업실제, 가격절화,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상담하고 고민 하시는 분 시술없이 전화하세요!

● 생명의 전화 : (02)2242-0331, 2242-0255 (011)471-1996  
E-mail : hbac@chollian.net

● 주문 신청방법  
국민은행 042-21-0582-499 조정순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韓國佛教藝術文化院**  
韓國佛教禪墨家協會